

현행 광주지역 장례식장의 喪服 연구

윤은영[†] · 김은정 · 김용서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Research on the Mourning Garments of Modern Funeral Services in Gwangju

Eun-Young Yoon[†], Eun-Jung Kim and Yong-Seo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10. 20. 접수 : 2004. 8. 6.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shows problems of modern Mourning Garments used in Gwangju area compared to traditional ones. Researches are as followed; First, items of mourning garments have been not used by degrees. Male has worn Jung-Dan and Du-ru-mak-i as Pyo-Eui of male mourning garments. Second, mourning garments have been simplified and modified. These simplification in shape and uniformity in size are only for Mass production and convenient manufacture. Third, modern mourning garments are made of 6-su (thin) Hemp cloth. In fact this material has no hemp and is just made of cotton and chemical textiles. Even though it is not made of hemp, it has been sold with the name of Hemp Cloth. Materials should be clearly listed. Forth, traditional mourning garments are manufactured through needlework while modern ones through mass production. Now the former is expensive rather than the latter. So Mass produced garments would be preferred to traditional made ones.

Key words: Du-ru-mak-i(두루마기), Jung-Dan(중단), mourning garments(상복), Pyo-Eui(포의), Simplification(간소화), Uniformity(획일화), 6-su Hemp Cloth(Thin, 6수 삼베).

I. 머리말

전통 상례문화는 19C 말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고 뒤이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지나치게 과장된 예식(禮式)으로 치부되면서 20C 초 일제의 의례준칙에 의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상례문화는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 차례의 관련 제정

법이 마련됨으로써 상례 기간과 절차는 물론 전통복식인 상복까지도 생략되고 간소화되는 등 많은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던 상례문화가 점차 전문장례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복은 제작업체의 생산방식과 상업성으로 인하여 그 형태에 있어 잘못 변화되고 품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교신저자 E-mail : betty0000@hanmail.net

그 동안 상복에 관한 연구는 이미경¹⁾을 시작으로 김영자²⁾, 김희숙³⁾, 조우현⁴⁾은 조선시대 상복을 문헌 고찰하였으며, 그 후 송유미⁵⁾, 김용서⁶⁾에 의해 지역적 실태와 제작법에 대해 다루는 등 연구범위가 확대되었고, 나아가 최혜울⁷⁾, 나수임⁸⁾, 손경희⁹⁾에 의해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조선시대로 한정되고 문헌위주의 고찰이었다. 그리고 실태 조사는 설문에 그친 정도였으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상복의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례문화에 따라 변화된 상복을 제작업체와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을 통하여 품목, 형태 및 치수, 소재, 가격 및 유통과정 등을 위주로 실태 조사하여 전통상복이 현재의 상복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된 조선 후기 대표적 예서인 이재(李穡)의 『사례편람(四禮便覽-1844)』과 주석어 추가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1900)』을 중심으로 전통상례에 관하여 살피고, 「(현대인을 위한) 가정의례상식」을 비롯한 참고서와 선행연구 논문을 참고하고자 한다. 현장조사는 광주지역으로 한정하고 조사대상은 현재 장례예식을 전문적으로 치르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병원소속 장례식장과 일반 전문장례식장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씨티병원·빛고을·무등 장례식장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조사대상 선정 및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2003년 4월 28일부터 2003년 5월 9일까지로 간단한 질문과 면담을 병행하였고, 치수를 실측하고 형태적인 특징 등을 조사하였다.

II. 한국 상례문화의 이론적 배경

한국 상례문화는 조상의 임종(臨終)을 맞이할 차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운명(殞命)한 후 시신을 처리하고, 죽은 이와 의 관계에 따라 복(服)을 갖추어 입고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근신하면서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를 마치기까지의 모든 의식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상례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조금의 소홀함이 없었으며, 이는 효사상이 절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조상의 생각과 행동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1. 상례 절차

『국조오례의』에 나타나는 상례 절차는 국상(國喪)과 사서인상(士庶人喪)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조선 후기 대표적 예서인 『사례편람』과 큰 차이는 없으며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弔),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引),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초우-계우-삼우), 졸곡(卒哭), 무제(耐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禫), 길제(吉祭)로 대개 5일장 이상으로 차리지며 형편과 신분에 맞도록 장기를 정하게 된다. 반면 현행 상례는 대개 임종(臨終), 수시(收屍), 발상(發喪), 부고(訃告),

- 1) 이미경, "상복에 관한 연구-상복의 원형태와 제작법을 중심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pp. 1-73.
- 2) 김영자, "상례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 1-119.
- 3) 김희숙, "조선시대 사가의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 4-76.
- 4)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 1-175.
- 5) 송유미, "상례복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p. 8-76.
- 6) 김용서, "진도지방의 남자 상례복 제작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회지* 3권 1호 (1993), pp. 67-84.
- 7) 최혜울, "조선시대 상장례·상례행렬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 1-96.
- 8) 나수임,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지* 8권 5호 (2000), pp. 648-659.
- 9) 손경희, "조선시대 상례복식의 현대적 이해"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80.

염습(殮襲), 입관(入棺), 성복(成服), 조문(弔問), 발인(發柩), 탈상(脫喪)으로 제시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3일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현행 상례절차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종은 운명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으로 운명을 확인하면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 들이는데 이를 고복(梟復)이라 한다. 고복이 끝나면 수시를 하는데 이는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가 끝나면 외부에 고인이 죽음을 알리는데 이를 발상이라 하고 여기까지 첫째 날에 해당한다. 다음날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데 이를 염습이라고 한다.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하고, 입관이 끝나면 상주와 복인(服人)이 상복을 입는데 여기까지가 둘째 날에 해당한다. 그리고 셋째 날 발인을 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현행 상례절차는 전통 상례절차와 비교했을 때 절차가 생략되는 등 간소화를 보이거나 내용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아직까지 상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례(四禮) 중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 상례절차와 현행 상례절차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상 복

전통 상복의 품목은 남자상복과 여자상복으로 나눌 수 있다.

『증보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자상복의 품목은 의(衣), 상(裳), 중의(中衣), 관(冠), 효건(孝巾),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 행전(行纏), 상(杖), 구(屨)가 있다. 착용순서는 의(衣)와 상(裳) 안에 중의를 받쳐입고 머리에는 효건을 두르고 관을 쓴 다음 그 위에 수질을 맨다. 상(裳) 위에는 교대와 요질을 띠고 행전을 차고 구(屨)를 신고 상장을 짊는다. 여자는 의상(衣裳), 개두(蓋頭), 관(冠), 잠(簪), 수질, 요질, 교대, 장, 구를 착용한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 상복은 전통적 상장례 문화

가 형식과 내용에 대해 크게 간소화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¹⁰⁾에 '남자상복은 한복일 경우 흰 옷, 흰 두루마기, 마포두건, 마포상장, 흰 고무신으로, 양복일 경우는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검은 양말, 검은 구두, 마포상장으로 하며, 여자상복은 한복일 경우, 흰 치마저고리, 흰 비선, 흰 고무신, 마포상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 검은 구두,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73년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¹¹⁾에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부푼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상복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굴건제복을 하기도 하며, 두루마기나 중단에 두건과 행전을 하거나, 모두 두루마기에 두건 행전을 하는 경우 등 여러 착용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검은 양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왼쪽 팔에 완장을 차고 상장리본을 달기도 하며, 여자는 메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배수건물 하거나 광복·하이블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상장리본을 다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III. 현행 광주지역 상복의 실태

현재 상복은 20세기 말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시티병원 등에 소속된 장례식장과 빛고을, 무등 장례식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복의 실태를 품목과 명칭, 형태 및 치수, 소재 등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1.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 정부는 1969년 1월 16일자로 실정(實定) 법령으로 규제하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법률제 2079호)을 제정하였다.

11) 정부는 1973년 3월 13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 2065호)을 공포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6552호)을 공포함과 동시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411호)을 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규제가 가능해졌다.

〈표 1〉 전통 상례 절차와 현행 상례 절차

전통 상례		현행 상례			
날짜별	사례편람(1844)	날짜별	가정의례상식(1998)	현대 생활 속의 상장례(2001)	한국 산업 규격(KS-2002)
첫째날	초종(初終)	첫째날	임종(臨終)	친거정침 (鷹居正寢)	임종
				운명(殞命)	운명
				복(復)	고복
			수시(收屍)	수시	수시
			발상(發喪)	발상	-
부고(訃告)	부고	부고			
둘째날	습(襲)	둘째날	염습	염습	염습
	소렴(小斂)		입관(入棺)		입관
셋째날	대렴(大斂)	셋째날	성복	성복	성복
넷째날	조(弔)		발인, 운구(運柩)	발인 운구	발인
	문상(聞喪)				
	차장(治葬)				
3개월후	천구(遷柩)		하관 성분(成墳)	위령제, 삼우(三虞)	반혼제 (혹은 초우제)
	발인(發引)				
	납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장례 후	49제 100일제 소상제 대상제	49일제 100일제
	부제(耐祭)				
13개월째	소상(小祥)				
25개월째	대상(大祥)				
27개월째	담(禫)				
담제 후	길제(吉祭)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국영업체인 관계로 보통 1년에 한차례 입찰을 통해 상복을 구입하고 있었으며, 주요 거래업체는 광주를 중심으로 조선장제 산업, 화신직물, 삼베타운, 신일상사 등으로 이들 업체들 중에 입찰요건이 맞는 곳으로부터 물품을 구입

한다. 2003년 5월 현재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삼베 중단 3,750원, 광목T/C(남,여) 2,400원, 하이블T 4,200원, 검은하이블 6,000원으로 대부분 6,000원 이하의 가격을 보이며 부속품은 상장리본 70원부터 검은 넥타이 1,060원까지 있다. 이외에 검은 양복은 보통 3

일로 하여 30,000원에 대여하고 있다.

1) 품목 및 명칭

남자상복은 중단·두건·행전¹²⁾은 6수¹³⁾ 삼베로 제작된 것을 지칭하고, 두루마기, 중의적삼은 광목 T/C로 제작된 것을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주(喪上)는 중단 안에 중의적삼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며 행전을 차고, 사위나 손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두건을 쓰며 행전을 찬다. 이 밖에 검은 넥타이, 완장, 상장리본이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을 때 왼쪽 팔에 완장을 차고 가슴에 상장리본을 단다.

여자상복은 광목T/C, 흰 하이블¹⁴⁾T, 검은 하이블 T/P 세 종류를 소재로 한 치마저고리가 있으며 하이블을 입을 때 머리에 꽃는 상장리본이 있다.

2) 형태 및 치수

남자용 중단(中單)은 직령(直領)이며 것이 둥근 칸깃 모양이고 양옆 밑단에 부가 있다. 소매는 두리 소매이며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허리부분에 부착되어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帶)가 있다. 대의 형태는 양끝이 삼각형을 이루고 세로길이 8cm, 가로길이 230cm이다. 중단은 뒷목점에서 2/3 내려온 지점부터 밑단까지 트여 있다. 두루마기는 등솔가를 없애고 한 장으로 구성되며 양옆 밑단에 부가 있고, 소매는 수구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이다. 두건은 앞 중심에 솔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앞 중심에 솔기가 있는 것을 상주건(喪上巾)이라 한다. 완장은 높이 11cm, 폭 21.5cm의 삼베이며 1.5cm이 검은 끈이 부착되어 두 줄은 상주, 한 줄은 그 이하를 상징한다.

여자용 하이블 차마는 큰 폭과 작은 폭, 두 폭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이블 저고리는 길과 소매를 이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저고리처럼 동정을 달았다. 광복 치마저고리에 비해 꼼꼼한 봉제상태를 보이며 허리말기에 어깨 끈이 달려 있다.

남자상복 중단의 치수는 품을 넉넉하게 하여 한 가지 치수만 있는 반면 두루마기는 대, 중, 소, 아동용으로 치수가 재분화되어 있다. 여자상복 치수는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이블은 특대, 대, 중, 소가 있고 광복은 어른용뿐만 아니라 아동용까지 있다.

3) 소재

소재는 6수 삼베¹⁵⁾, 광목T/C, 하이블T, 하이블T/P가 사용되고 있다. 6수 삼베는 100% 국산삼베가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기계로 짠 다음 가공하여 풀을 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목T/C는 광목과 T/C의 합성으로 원래 P/C라 하는 것이나 현재 T/C로 사용되고 있다. T/C의 합성 비율은 폴리 60%와 코튼 40% 혹은 폴리 65%와 코튼 35%의 합성으로 화학섬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말한다.¹⁶⁾ 하이블 T/P의 T/P는 폴리에스테르를 특수 코팅 처리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트로피칼 혹은 트리페칼이라 하였으며, 이비지 현수막이나 어깨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⁷⁾ 광목 T/C는 약간 노란색이고 하이블은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며 매끈하고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

2.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민속공예'라는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12) 일반적으로 행전(行纏)이라고 하며, 전남대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빛고를 장례식장에서는 행건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13) 민길자, 전통옷감 (서울: 대원사, 2000), p. 20.

포(布)는 정세도로 그 품질을 가늠하는데, 정세도는 포폭(布幅) 사이에 정경(正經)된 경사의 수(數)에 의해 가늠한다. 곧 한 포폭 사이에 80울의 경사가 정경되었을 때를 1승(升)이라 하며 승수(升數)가 커질수록 섬세해진다. '수'는 현행 업체에서 쓰는 말로 울의 가늠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의 가늠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승' 혹은 '새'와 같은 의미이다.

14) 하이블이란 여자상복의 치마저고리를 만드는 소재의 종류로서 합성섬유를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하이블을 소재로 한 치마저고리를 하이블이라 지칭하고 있다.

15) <http://www.sky1024.co.kr>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베가 육수라는 제품을 사용하나 이는 마 성분이 없고 면과 화학사가 섞여 제작된 것으로 겉보기에는 삼베와 구별이 안된다.

16) <http://www.dongbosomyou.co.kr>, 동보섬유, 031) 861-2398.

17) <http://www.dreamadk.co.kr>.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마포상복(남,여)·여자 하이블T/P 15,000원, 광목T/C(남,여) 5,000원이며 부속품은 상장리본 300원부터 수질, 요질, 검은 넥타이 등 3,000원까지 있다. 또한 검은 양복은 보통 3일로 하여 30,000원에 대여하고 있다.

1) 품목 및 명칭

남자상복은 마포상복이라 하여 상의·하의·두건·관·행전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중단, 광목T/C·삼배 두루마기가 있다. 마포상복의 부속품으로는 수질, 요질, 짚신, 상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주(喪主)는 마포상복을 착용하고 머리에 수질, 허리에 요질을 두르고 짚신을 신고 상장을 짚으며, 사위나 손자들이 중단이나 두루마기를 입는다. 이 밖에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완상, 상장리본이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을 때는 왼쪽 팔에 완상을 차고 상장리본을 단다.

여자상복은 마포상복, 광목T/C, 하이블T/P 세 종류를 소재로 한 치마저고리가 있으며 마포상복의 부속품인 베수건이 있고 하이블의 부속품으로 머리예뻐는 상장리본이 있다.

2) 형태 및 치수

남자용 마포상복 상의(上衣)의 가령(加領)과 벽령(辟領)의 모양은 좌우대칭이다. 소매는 직선형 광수(廣袖)이며,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구성요소로서 등에 부판(負版) 한 장, 앞가슴에 최(衰) 두 장, 밑단에 붙인 대하척(帶下尺), 임(衽) 네 장이 있으며 앞 중심에서 두 번 여미게 되어 있다. 하의(下衣)는 앞 2폭·뒤 2폭으로 크기가 같고 각각 작은 폭과 큰 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폭에 주름 한개, 큰 폭에 주름 두개가 있다. 중단은 것은 직령(直領)이며 둥근 칼깃이다. 소매는 직선형 광수(廣袖)이고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전남대 병원에서 본 중단과는 다른 형태로 허리에 부착된 대(帶)가 없을 뿐 아니라 뒤트임도 없다. 광목 두루마기는 등 술기를 없애고 한 장으로 구성되며 양옆 밑단에 무가 있으며, 소매는 수구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

태이다. 두건은 앞 중심에 술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형태로 앞 중심에 술기가 있는 것을 상주진이라 한다. 완장은 높이 10cm, 폭 20cm의 삼배이며 1.5cm이 검은 끈이 부착되어 두 줄은 상주, 한 줄은 그 이하를 상징한다.

여자용 마포저고리는 깃과 같은 소재로 동정이 달려 있고 베수건은 사각형태이다. 하이블 저고리는 일반저고리처럼 동정이 달려 있고 봉제상태가 뽀뽀하다. 마포차마는 작은 폭과 큰 폭으로 연결되어 있고, 허리말기가 14.5cm의 높이로 다른 곳에 비해 높다. 하이블 치마에는 어깨 끈이 달려 있다.

남자상복 마포의 치수는 품을 넉넉하게 하여 한 가지만 있는데 비해 광목 두루마기는 특대, 대, 중으로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다. 여자상복 마포의 치수는 품을 넉넉하게 하여 한가지 치수만 있고 광목과 하이블 치마저고리의 치수는 특대, 대, 중이 있다.

3) 소재

소재는 6수 삼배 100%, 광목T/C, 하이블T/P 100%로 표기되어 있다. 여자용 마포상복의 재질로는 낙면¹⁸⁾수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삼배는 국산삼배가 아니고 원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생산한 것이다. 광목T/C는 광목 60%와 T/C 40%가 합성된 것으로 누런색이고 뻣뻣한 느낌을 주며, 하이블T/P는 폴리에스테르를 특수코팅처리한 것으로 광택이 나는 흰색이다. 이 밖에 수질과 요질은 스폰지에 마포를 두른 것을 사용하고, 상장(喪杖)은 대나무와 버드나무로 한다.

3. 씨티병원 장례식장

씨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조선상제산업'에서 납품 받고 있으며 조선장제에서는 모든 품목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고 실가격은 이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굴건제품 20,000원, 중단·여자 배상복·하이블 12,000원, 광목제품 7,000원이며 부속품은 두건 1,000원에서 검은 넥타이 4,000원까지

18) 한국섬유공학회, *신설유사전* (서울: 한림원, 2003), p. 130.

낙면(落綿, waste cotton)이란 방적 공정 중에 발생하는 찌꺼기 면을 말하며... 낙면사는 품질이 나쁜 실을 말한다.

있다. 기타 검은 양복은 보통 3일로 하여 30,000원에 대여하고 있다.

1) 품목 및 명칭

남자상복은 굴건제복이라 하여 상의·하의·건·관·행전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중단, 두루마기가 있으며 중의적삼은 바지저고리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상주만 삼베로 된 굴건제복과 중단을 입으며 상주 이하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굴건제복과 중단을 입을 때 받쳐입는 옷으로 중의적삼은 구비해 두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검은 양복이 있는데 이 때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왼쪽 팔에 완장을 찬다.

여자상복은 베, 하이블, 광목, 옥양목 네 가지 종류로 치마저고리가 있으나 베와 옥양목은 구비해 두지 않고 있다. 부속품으로 머리에 꽂는 상장리본이 있다.

2) 형태 및 치수

남자용 굴건제복의 상의(上衣)는 가령(加領)의 형태는 일반 깃과 같고 깃 파임이 깊다. 벽령(辟領)은 없으며 구성요소로서 등에 부판(負版) 한 장, 앞가슴에 쇠(衰) 두 장, 밑단에 붙인 대하척(帶下尺), 임(衽) 네 장이 있다. 앞 중심에서 세 번 여미게 되어 있다. 소매는 두 장으로 연결되어 구성되었고, 수구(袖口)로 갈수록 좁아지는 곡선형이다. 하의(下衣)는 앞 3 폭·뒤 4폭으로 폭 당 한 개씩 주름을 잡았고 시접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 중단은 깃이 직령(直領)이며 소매는 굴건제복의 것과 같다. 그리고 뒷목점에서 아래로 1/2 내려온 지점부터 트임이 있고 고름으로 한번 여미고 허리에서 끝이 직각인 대(帶)로 한번 더 여민다. 전남대병원의 중단과 비슷하나 소매와 대(帶)의 형태가 다르다. 두루마기는 등솔기 없이 한 장이며 무가 중단보다 넓고, 소매는 한 장 구성되어 있다. 시접을 오버로크 처리하고 두 번 접어 박아 비교적 깔끔하게 재봉하였다.

여자용 치마저고리는 일반 치마저고리 형태와 같고 광목 저고리에는 같은 소재로 동정이 달려 있는 반면 하이블 저고리에는 일반저고리처럼 동정이 달려 있다. 치마는 폭을 잊지 않고 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블의 치마는 안감을 걸감과 같이 하였다.

남자용 굴건제복의 치수는 대, 중, 소로 표기하도

록 되어 있으나 거의 한 치수로 제작되고 있고 중단과 두루마기는 대, 중, 소 모두 구비되어 있다. 여자용 치수는 광목으로 대, 중, 소로 구분하여 모두 구비하고 있다.

3) 소재

소제는 광목, 옥양목, 하이블이 사용되고 삼베는 낙면 7수와 6수 삼베 100%로 표기되어 있다. 이 소재는 원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생산한 것이다. 광목을 사용한 남자 두루마기는 풀을 먹여 뽀뽀하고 매끄러운 반면 여자 치마저고리는 색이 더 누렇게 표면도 매끄럽지 않다.

4. 빛고를 장례식장

빛고를 장례식장에서는 '조선장제산업'과 '삼베타운'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주로 조선장제산업에서 물품을 받지만 조사 당시 마포로 제작된 것은 삼베타운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2003년 5월 현재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굴건제복·검은하이블 20,000원, 중의적삼·중단·여자베상복·하이블 10,000원, 광목제품이 5,000원이며 그 부속품인 상장·근조리본 500원에서 짚신 5,000원까지 있다. 검은 양복은 보통 3일로 하여 30,000원에 대여하고 있다.

1) 품목 및 명칭

남자상복은 굴건제복이라 하여 상의·하의·건·관·행전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중단, 광목두루마기가 있으며 중의적삼은 바지저고리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주는 굴건제복을 입고 수질, 요질을 두르고 상장을 짚으며, 그 이하는 중단이나 두루마기를 입는데 상주가 중단을 입기도 한다. 이 밖에 검은 양복을 입을 때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완장을 왼쪽 팔에 찬다. 혹은 왼쪽 가슴에 상장리본을 달기도 한다.

여자상복은 마포, 광목, 하이블을 소재로 한 치마저고리가 있다. 마포 치마저고리를 입을 때는 배수건을 머리에 쓰고 수질, 요질을 두르며 광목·하이블 치마저고리를 입을 때는 머리에 꽂는 상장리본이 있다.

2) 형태 및 치수

남자용 굴건제복의 상의(上衣)는 가령(加領)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너비가 좁고 길며 파임이 깊다. 벽령(辟領)은 없으며 구성요소로서 등에 부판(負版) 한 장, 앞가슴에 쇠(衰) 두 장, 밑단에 불인 대하척(帶下尺), 임(衿) 네 장이 있다. 앞 중심에서 세 번 여미게 되어 있다. 소매는 수구(袖口)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하의(下衣)는 앞 3폭·뒤 4폭으로 한 폭당 주름을 한 개씩 잡았다. 중단은 허리띠처럼 직사각형의 대가 있고 소매는 굴건제복의 것과 같으며, 뒷중심의 1/2 지점부터 아래까지 트여 있다. 두루마기는 등솔기 없이 한 장이며 무가 중단보다 넓고 소매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용 마포 저고리는 깃과 동일한 소재의 동정이 달려 있고 하이블의 저고리 깃에는 일반저고리처럼 동정이 달려 있다. 마포 치마는 5개의 폭으로 각 폭당 3, 4개의 주름을 잡았다.

남자용 굴건제복과 중단은 품을 크게 제작하여 치수는 한가지만 있고 두루마기는 대, 중, 소 모두 구비되어 있다. 여자용 마포도 남자용 굴건제복과 중단과 함께 한가지 치수만 있으나 광복과 하이블로 만든 상복은 특대, 대, 중, 소 혹은 아동용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3) 소재

상복의 소재로 마포, 광복, 하이블이 사용되고 있으나 굴건제복이나 중단, 여자 치마저고리에 사용되는 마포는 정확한 표기가 없어 소재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 알 수 없다.

5. 무등 장례식장

무등 장례식장은 주로 화신직물에서 상복을 구입하며 2003년 5월 현재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은 굴건제복 20,000원, 마포 중단·마포 한복·하이블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 10,000원, 광복 두루마기·광복 치마저고리 5,000원이다. 검은 양복은 보통 3일로 하여 30,000원에 대여하고 있다.

1) 품목 및 명칭

남자 상복은 굴건제복이라 하여 상의·하의·두건·관·행전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마포 중단, 마포·광복 두루마기, 바지저고리(한복)가 있다. 일반

적으로 상주는 받치입는 옷으로 바지저고리를 입고 굴건제복을 입는다. 이 때 상주 이하는 중단이나 두루마기를 입고 두건과 행전을 찬다. 그러나 상주가 중단을 입기도 한다.

여자 상복은 마포 한복이라 하여 배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지칭하고 광복·하이블을 소재로 치마, 저고리가 있다. 광복과 하이블 치마, 저고리의 부속품으로 상장리본이 있다.

2) 형태 및 치수

남자용 굴건제복의 상의는 깃 너비가 좁고, 깃 파임도 깊다. 전통의 가령(加領) 형태와는 차이가 나머지(適) 또한 다르다. 구성요소로 앞가슴에 쇠(衰) 두 장, 대하척(帶下尺), 임(衿) 네 장, 등에 부판(負版)이 있다. 소매는 두리 소매이며,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다른 곳의 상의에 비해 길의 길이가 길고, 소매는 길이에 비해 좁다. 상의는 합입(合衿)이며, 고풍은 넷으로 앞 중심에서 두 번 여미게 되어 있다. 상의의 솔기는 모두 안을 향해 있다. 하의는 앞 2폭·뒤 2폭으로 앞폭은 작은 폭과 큰 폭을 연결하였고, 뒤폭은 큰 폭을 두 개 연결하였으며, 앞뒤 길이는 같고 너비는 다르다. 여밈의 방향은 오른쪽이며, 주름의 형태는 외주름이다. 주름은 작은 폭에 없고 큰 폭에 한 개씩 있다. 중단은 깃은 직령이며, 둥근 칼깃이다. 소매는 두리 소매이며 다른 곳의 중단에 비해 크고, 두 장으로 연결 구성되어 있다. 조선대 병원의 중단과 비슷하며 무 너비가 다른 곳에 비해 넓다. 전남대, 씨티, 빛고을에 있는 중단과 달리 허리에 부착된 대도 없을 뿐 아니라 뒤트임도 없다. 두루마기는 베를 소재로 한 것이며 깃은 직령이고 소매는 중단에 비해 좁다. 직선 배래로 지나다가 수구에 가까워지면서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여자용 마포 저고리는 광복이나 하이블 저고리에 비해 길고 품은 넉넉하다. 소매의 배래선은 직선으로 지나다가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곡선형이며, 동정은 달려 있지 않다. 마포 치마는 6폭으로 되어 있고, 주름이 한 폭에 두 개씩 모두 열 두개의 주름이 불규칙하게 잡혀 있다. 광복 치마는 폭을 잊지 않고 1폭으로 되어 있다.

무등 장례식장 상복의 치수는 남녀 모두 소재에 따라 세분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용 굴건

제복, 마포 중단, 마포 두루마기와 여자용 마포 한복은 품을 넉넉하게 하여 한 가지 치수만 있는 반면 남자용 광복 두루마기와 여자용 광복·하이블 치마, 저고리는 특대, 대, 중, 소로 세분화되어 있다.

3) 소재

상복의 소재는 삼베, 광목, 옥양목, 하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굴건제복, 마포 중단, 마포 두루마기, 마포 한복은 베를 소재로 하고, 광목과 옥양목은 바지저고리, 두루마기의 소재로 사용되고 하이블은 치마, 저고리의 소재로 사용된다.

IV. 현행 상복에 나타난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1. 현행 상복에 나타난 문제

1) 품목 및 명칭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상복의 품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예서인 『사례편람』과 주석이 추가된 『증보사례편람』에 제시된 남자 상복은 의(衣)·상(裳)·중의(中衣)·효건(孝巾)·관(冠)·행진(行纏)이 있고, 여자 상복은 의상(衣裳)·개두(蓋頭)·관(冠)·잠(簪)이 있으며, 부속품으로 수질(首絰), 요질(腰絰), 환질(環絰)¹⁹⁾, 고대(絞帶), 장(杖), 구(屨)가 있다. 상복의 품목과 명칭을 『사례편람』과 광주지역에서 조사한 현행상복의 품목과 명칭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한편 현행 상복의 품목은 남자상복으로 상의·하의·건·관·행진·중단·두루마기·바지저고리, 여자상복으로 치마저고리·베수건, 남녀 통용 상복으로 수질·요질·상장(喪杖)이 있다. 여기에 현행 상례문화에 의해 생겨난 검은양복, 검은넥타이, 완장, 상장리본 등의 3~4가지 품목이 추가되어 있다. 『사례편람』에 제시된 상복과 조사한 5곳의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상복의 품목과 명칭을 비교 제시

한 <표 2>를 보면 남자 상복의 중의가 사라지고 중의적삼이 이를 대신하고, 남녀 통용상복의 고대가 사라지고 여자 상복의 두식류(頭飾類)는 베수건 하나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상복이 죽은 이에 대하여 예를 갖춘다는 예복의 의미를 가지는데 일부 품목이 구비되지 않아 굴건제복을 착용할 때 받쳐입는 옷으로 평상복을 대신하여 미관상 부자연스러운 감을 준다. 이를 보아 장례식장에 구비된 품목 중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생략되기도 하였으며 혹은 필요 없는 품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명칭에 있어 굴건제복을 제복, 6수 삼베, 마포 상복이라고도 하고 행전을 행건이라 하여 지방적인 특성을 나타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요구된다. 여자 상복의 베수건은 두식류인 개두와 쓰임이 유사한 것으로서 명칭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종사자들은 상복 소재의 명칭에서도 하이블 또는 하이블, 하이벌이라 하여 일관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명칭의 변화는 전통을 계승하여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보다는 구습(口習)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즉 구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전통 상복의 명칭이 변화되어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2) 형태 변형 및 치수의 획일화

현행 상복의 형태는 전통상복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²⁰⁾에서 보듯이 남자상복은 구성요소를 비교적 갖추려 하였으나 형태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고, 그 중 가령(加領)은 고대부분의 삼각형이 아닌 직령(直領) 형태로 변형되었고 벽령(辟領)은 대부분 생략되었다. 상의의 소매는 두 장으로 연결하여 구성하였고, 형태는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곡선형과 두리 소매형으로 전통의 직선형 광수(廣袖)와 차이를 보인다. 하의의 형태는 앞 2폭·뒤 2폭, 앞 3폭·뒤 4폭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19)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민문고, 1988), pp. 552-553.

환질(環絰): 소렴 때 상제가 쓰는 사각건 위에 덧쓰는 삼으로 꼬아만든 등근 테.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소렴 때 환질은 스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닥이 될 것이고, 질은 성복하기 전에 쓰고 소상 후에 벗는 것이니 최복(衰服)에 딸린 것은 아니다 하였다(卷之十六 人事門).

20) 전남대병원은 굴건제복을 구비해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이를 제외한 장례식장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전통 상복과 현행 상복의 품목 및 명칭

시대	전 통		현 행								
	사례원람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씨티병원		빛고을		무등		
남자 상복	의(衣)	6수 삼베 *	중단 *	마포 상복 *	상의	굴건 제복	상의	굴건 제복	상의	굴건 제복	상의
	상(裳)				하의		하의		하의		
	효진(孝巾)				두건		두건		두건		두건
	관(冠)				행건 *		관		관		관
	행진(行纏)						행건		행건		행건
	중의(中衣)	-	-	-	-	-	-				
	-	증의적삼 *	-	-	-	-	한복				
	-	두루마기 (광목)	두루마기 (베, 광목)	두루마기 (광목)	두루마기 (광목)	두루마기 (광목)	두루마기 (베, 광목)				
	-	-	중단(베, 광목)	중단(베)	중단(베)	중단(베)	중단(베)				
	-	검은양복	검은양복	검은양복	검은양복	검은양복	검은양복				
-	검은넥타이	검은넥타이	검은넥타이	검은넥타이	검은넥타이	검은넥타이					
-	완장	완장	완장	완장	완장	완장					
여자 상복	의상(衣裳)	치마저고리 (광목, 하이볼T, 혹하이볼T/C)	마포상복 (베, 광목, 하이볼)	치마저고리 (옥양목, 광목, 하이볼)	치마저고리 (베, 광목, 하이볼)	마포한복 (베, 광목, 하이볼)					
	개두(蓋頭)	-	스카프 *	-	스카프	스카프					
	관(冠)	-	-	-	-	-					
	잠(簪)	-	-	-	-	-					
남녀 통용 상복	수질(首絰)	-	수질	수질	수질	수질					
	요질(腰絰)	-	요질	요질	요질	요질					
	교대(絞帶)	-	-	-	-	-					
	장(杖)	-	장	상주지팡이	상장막대	장					
	구(屨)	-	-	-	짚신	-					
-	상장리본	상장리본	상장리본	상장리본	상장리본	상장리본					

* 현행 상복에 나타난 용어와 형태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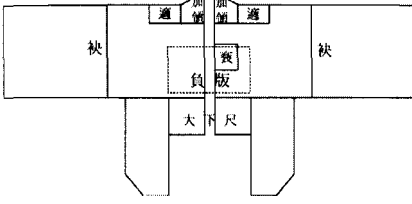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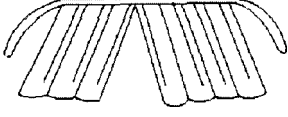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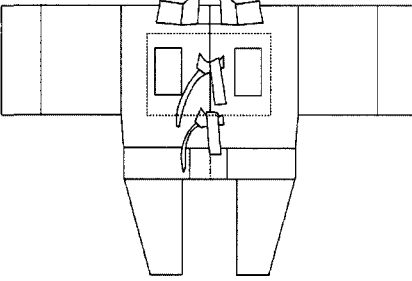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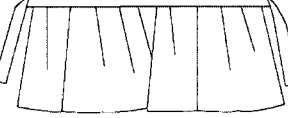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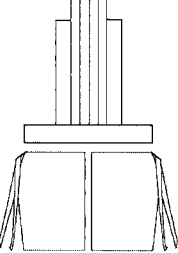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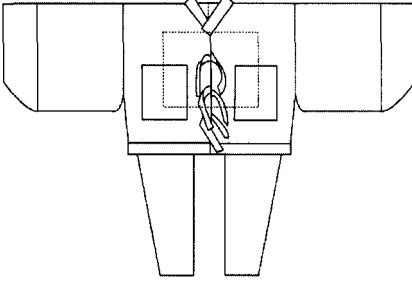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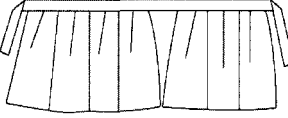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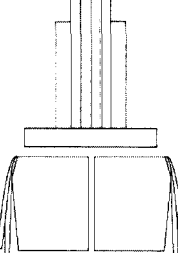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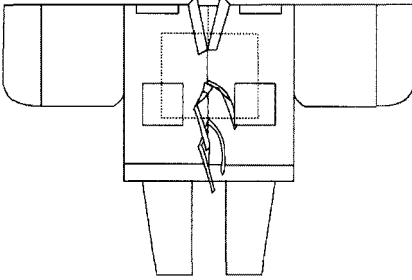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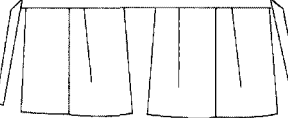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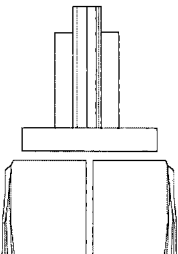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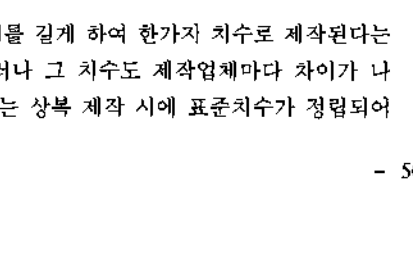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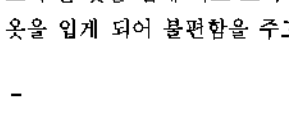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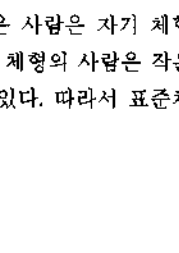
※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의 굵은 글씨는 현행 상복의 실태에서 다른 품목을 표시한 것임.

여미의 방향도 정확하지 않았다. 주름의 형태는 의 주름으로 전통의 맞주름과는 다르다. 주름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이 여미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앞뒤 혹은 안팎이 바뀌어 착용하기도 하였다. 여자상복은 치마저고리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목이나 하이볼을 소재로 제작된 상복의 경우는 특대, 대, 중, 소, 아동용까지 세분화되어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남자 굴건제복과 여자 베상복 치수는 건 제형에 이용될 수 있도록 품을 크게

<표 3> 장례식장별 상복의 형태

장례식장	남 자		
	최 의(상의)	최 상(하의)	건, 관, 행전
전통 상복			
조선대 병원			
씨티 병원			
빛고을			
무등			

하거나 길이를 길게 하여 한가지 치수로 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치수도 제작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상복 제작 시에 표준치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체형이 작은 사람은 자기 체형보다 큰 옷을 입게 되고 보다 큰 체형의 사람은 작은 옷을 입게 되어 불편함을 주고 있다. 따라서 표준체

형에 대한 치수를 도입하여 표준형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체형과 큰 체형을 감안한 대, 중, 소로 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형태의 변화와 치수의 획일화는 상례가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상복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상의 편리함으로 인해 변형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작자들이 상복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지식 없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전통의상을 제작한다는 제작자의 자부심과 전통에 대한 의식결여가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3) 소재의 적절성

우리나라에서 상복(喪服)의 소재로 삼베를 사용한 풍습은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마의태자(麻衣太子)는 나라를 빼앗기자 망국의 설움을 안고 누런 삼베로 된 누더기옷을 입은 채 개골산(皆骨山: 현재의 금강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한국 사람들은 상(喪)을 당했을 때 삼베옷을 입어 망자(亡者)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상복(喪服)을 입었다²¹⁾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6수 삼베라는 것은 마 성분이 없고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으로 삼베처럼 보이도록 짠 직물이다. 여기서 면은 낙면(落綿)으로 방직 공정 중에 발생하는 찌꺼기 면을 말하며 낙면사는 품질이 나쁜 실을 말하는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삼베처럼 보이기만 하도록 거칠게 직조하여 염색하거나 기계로 짜서 가공하여 풀을 먹인 것이었다. 그러나 포장지에는 6수 삼베 100%, 낙면 7수로 표기되어 실제로는 삼베가 아니면서 삼베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재 표기에 대한 정확성과 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상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국산 마포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4) 제작방식의 한계

전통 상복의 제작은 상이 발생하면 마을과 집안에서 이루어졌고 제작방법은 손바느질이었다. 남자 상복의 의(衣)에 있어 참취(斬袞)는 하단을 꿰매지 않고 재취(齊袞) 이하는 하단을 꿰매며²²⁾ 의(衣)의 등솔기와 진동솔기는 밖으로 하고 상(裳)의 솔기는 안을 향하여 제작하였다.²³⁾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제작방법은 볼 수 없고, 제작상의 편의를 위해 남자 두루마기는 등솔기를, 여자 저고리는 진동솔기를 없애 한 장으로 하거나 치마를 6~8폭을 잇지 않고 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현행상복은 이러한 제작업체의 상업성에 의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작업체들이 상복의 제작 형태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상복의 형태가 변형되어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극소수 제작자의 경우 소량으로 주문 받아 전통방식 그대로 손바느질하여 옛 방식을 고수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비싸 대량생산에 의해 제작되어진 낮은 가격의 상복 때문에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지금은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전통을 유지하면서 상복을 제작하는 곳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상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현재 상장례의식은 대부분 장례식장에 의해 대행되면서 절차상의 간소화와 더불어 상복뿐만 아니라 여러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복은 전통과는 다르게 제작되고 있으며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복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전통 상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상장례 절차와 더불어 상복의 변화는 우리 현대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얘기를 꺼려하는 수준이고, 상장례의식이 대부분 전통

21)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2) 『文公家禮』, 卷四, 成服.

斬袞:用極粗生麻布爲之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皆不縫緝. 齊袞:齊緝也.用比斬袞次等粗生布. 凡衣裳旁及下際皆緝.

23) 『家禮源流』, 卷之七, 喪禮, 成服.

衣縫向外裳前三幅後四幅縫內向.

장례업체에 맡겨져 행해짐에 따라 상장례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상장례의식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제작자들이 알기 쉽도록 형태와 제작방법 등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표준제형에 대한 치수를 도입하고 치수 세분화가 이루어져 제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국내 장례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관련 교육단체²⁴⁾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곳에서 학생은 물론 장례관련업체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국산삼베로 상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실정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그 중 한지를 이용한 복식디자인이 대두되고 실용성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활발한 가운데 한지를 상복의 소재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광주광역시를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현행 상복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광주지역 현행 상복의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복의 일부 품목이 구비되지 않아 굴건제복을 착용할 때 받쳐입는 옷으로 평상복을 대신하여 착용하는 등 미관상 부자연스러움을 보인다. 장례식장에 구비된 품목 중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생략되기도 하였고, 필요 없는 품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명칭은 일관되지 않고 잘못 변

화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명칭의 변화는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법보다는 구습(口習)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명칭이 변화되어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형태는 전통 상복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를 보이고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등 잘못 변형되어 제작되고 있다. 그리고 형태의 변형과 함께 치수의 획일화는 상복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의 제작 시 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려되고 있다.

셋째, 소재는 6수 삼베로 마 성분이 없고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으로 삼베처럼 보이도록 잔 직물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삼베처럼 보이지만 거칠게 직조하여 염색하거나 기계로 짜서 가공하여 풀을 먹인 것이나 포장지에는 6수 삼베 100%로 표기되어 실제로는 삼베가 아니면서 삼베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재 표기에 대한 정확성과 적절한 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상복을 제작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기계제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편의를 위해 등솔기와 진동솔기를 없애 한 장으로 하고 치마는 폭을 잊지 않고 한 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복의 제작방식은 수제작의 한계와 제작업체의 상업성에 의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작자들이 제작방법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량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그런 제품이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이 발생되었을 때 상례절차나 상복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례업체에 의한 장례 대행의 관행에 따라 상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일반인들이 현행 상장례의식이 전문 장례업체에 맡겨져 행해질지라도 전통 혹은 현행 상장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복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상복 품

24) 중앙일보, 2002년 12월 2일자, 산업탐구, '장례'.

서울보건대는 올해 장례지도과를 2년에서 3년제로 늘렸으며, 대전보건대도 올해 처음으로 장례지도과를 설립하고 동국대는 장례문화 전공석사과정을 개설했다. 그리고 몇몇 국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장례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목과 명칭의 정립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복에 대해 제작자들이 알기 쉽도록 형태와 제작방법 등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는 지침서 마련하고 치수 세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상장례 전반에 걸쳐 잘못 변화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산삼베로 상복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오늘날 상례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대부분 전문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상복도 전통상복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을 무시한 채 무엇이든 간소화하고 생략하려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전통상복을 격식에 맞게 갖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增補四禮便覽

文公家禮

家禮源流

김두현 (1936). "오복제도의 연구". 京城:大東印刷所, 3권 5권.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민문고.

김영자 (1981). "상례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자 (1988). "전통 상복의 구조와 형태에 관한 연구-가례집람을 중심으로". 안성농업전문대 논문집 20.

김용서 (1993). "진도지방의 남자 상례복 제작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회지 3권 1호.

김희숙 (1984). "조선시대 사가의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수임 (2000).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지 8권 5호.

남민이 (2001). 현대생활 속의 상장례. 서울: 학문사. 부산세계대백과 EnCyber.

문광희 (1999). "한국의 상례복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학회지 2권 3호.

민길자 (2000). 전통웃감. 서울: 대원사.

보건사회부 (1973). 가정의례해설. 서울: 보건사회부

손경희 (2002). "조선시대 상례복식의 현대적 이해".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유미 (1987). "상례복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숙 외 (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신정.

이미경 (1977). "상복에 관한 연구-상복의 원형태와 제작법을 중심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수 역 (1983). 예기(상 중 하). 서울: 수문서관.

이정숙 (1974). "한국의 사례복식에 관한 연구-관례복을 중심으로-". 영남대 논문집 8권.

임재해 (1990). 전통상례. 서울: 대원사.

정명자 (1975). "오복제도에 관한 연구-조선왕조의 국훈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우현 (1989).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재웅 (1998). (현대인을 위한) 가정의례상식. 서울: 예가.

최해울 (1997). "조선시대 상장례·상례행렬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일보, 2002년 12월 2일자, 산업탐구. '장례'.

한국장례협회 (2002). 한국산업규격.

한국섬유공학회 (2003). 신섬유사전. 서울: 한림원.